

야권발 정계개편 불 붙을까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유성엽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당 탈당 의원 10명 11월 내 제3지대 신당 창당 방침
바른미래 붕괴 촉매·보수 통합 촉발 '새 판짜기' 주목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12일 집단탈당을 선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 창당론'을 고리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 도화선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과 바른미래당 창당과정에서 결성된 민주평화당은 1년6개월만에 다시 정계개편의 격랑 속으로 빨려들게 됐다.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탈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세규합에 나서 11월 내에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다는 방침이다.

'보수 빅텐트론'에 맞선 '제3지대 빅텐트론'을 펴는 이들은 선제탈당을 통해 중도 세력의 구심점이 돼 범진보와 범보수를

아우르며 정계개편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평화당 분당이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붕괴의 촉매가 되고, 제3지대 통합과 보수 통합까지 연쇄 촉발해 정치권의 '새 판짜기' 흐름을 본격적으로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온다. 중도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 세력과의 결합에만 성공하더라도 제3정당으로서 변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평화당의 집단탈당이 '잣잔 속 태풍'을 넘어 총선 판도를 뒤흔들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분화로 바른정당 출신들이 보수 통합에 가세하면 정계개편의 진폭과 이합집산의 판이 더 커질 수 있다. 민주

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틈새에서 대안세력으로의 존재감을 키워가는 한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기존 지지자들에게 더해 무당층을 집중 공략하면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나아가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영입하거나 새로운 인물로 바람을 일으킨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탈표까지 흡수, '선거판 삼분지계'도 노려볼 만하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하지만 평화당 탈당 사태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세 불리기가 만만치 않다. 황주홍·김광수 의원 등 중립파의 추가 탈당이 이뤄질 것인지 미지수인데다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의 합류 여부도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 측과는 '당 대 당' 방식 또는 '헤쳐모여' 식으로 결합한다는 구상이지만, 최소한 1~2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전망도 명확치 않다. 호남당이라는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다.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국민의당 시즌 2'를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당시 당을 이끈 안철수 전 의원 같은 지역을 넘어서는 대선주자급 인물이 부재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 민심 저변에는 호남 중진들에 세대교체론과 국민의당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론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도 족쇄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내부적 동력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안 정치가 최소한의 현신과 비전이 없이 그저 정치적 생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외부 인사 영입과 정계개편을 견인할 수 있는 육참결단의 실행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동상이몽’ 바른미래

국민의당계 “3지대 동참을”…안철수·유승민계 “꿈수”

민주평화당의 12일 분당 사태가 그간 평화당과의 통합을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당장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중진 의원들은 이날 평화당 탈당 의원들이 역설한 '대안 신당' 건설은 그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설파해 온 제3지대와 맥을 같이 한다며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철수·유승민계 의원들로 구성된 비당권파는 평화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을 일부 세력의 '총선용 짝수'라며 평가절하하는 데 주력했다. 유승민계 한 의원은 "호남 패권 지역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며 "우리 바른미래당은 개혁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전국 정당을 추구한다. 이들과는 절대 같은 배를 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당권파 일각에서는 이날 평화당 탈당 사태가 호남계뿐 아니라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그리는 정계개편 1차 시나리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손대표가 올해 초부터 당내 호남계 및 평화당 주요 인사들과 꾸준히 회동을 가진 사실을 들어 당 지도부가 평화당과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심, 공격해 왔다.

다만 당권파는 이날 평화당 탈당 사태에 최대한 말을 아꼈다. 손대표가 줄곧 주장해 온 '제3지대론'을 평화당 탈당파 의원들이 역설한 '대안신당'과 같은 궤에 놓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선불리 이들과의 통합 혹은 연대 메시지를 던졌다가 자칫 정계개편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연합뉴스

텃밭서도 쪼개지는 평화당

원외위원장은 탈당·당원은 그대로

소속의원 10명이 탈당한 민주평화당이 최다 의석을 보유한 호남에서도 쪼개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당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평화당 전국평당원협의회'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소속 10명의 탈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원들이 선출한 집행부를 부정하면서 과정과 절차 없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지지율을 탓하며 무조건 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선출한) 전당대회에 참여한 당원들을 무시한 처

사"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평화당의 깃발을 지켜낼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화당의 분당 움직임은 원외 위원장으로서까지 확대되고 있다.

평화당 지역위원장, 상임위원장, 당직자 등은 전날 대안정치 소속 지역 의원들과 광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탈당에 함께하기로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평화당이 분당의 길로 가고 있지만, 결국 거대 양당을 견제할 '제3지대'를 중심으로 한 이합집산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일단 '신중 모드'… 원내전략 수정 불가피

범 여권 과반 변화 예의주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중이다. 하지만 물밑에선 평화당 분당이 야권의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당구도 변화가 표심을 어떻게 담을지, 원내의 범(汎)여권 '과반전선'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놓고 민감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해석 대변인은 12일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안

정치) 소속 의원 10명 등의 탈당에 대해 "특별히 민주당과 관계는 없다고 본다"며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이규형 전략기획위원장도 "그분들(탈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타개책을 마련하고자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거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꾸준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역시 이 같은 여유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민주당으로선 자체 후보로도 내년 총선에서 호남 탈환이 점쳐지는 마당에 국민의당 창당 과정부터 이미 '구원'이 상당한 호

남 중진들과 구태여 손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7일 전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 포인트)를 보면 평화당의 호남 지지율은 5.8%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과반인 54.8%였다. 다만 평화당의 분당이 야권의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크랭크 인'을 가능하게 할지에는 당내 관심이 쏠려 있다. 실제 국민의당 출신인 대안정치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호남 의원들은 지난 4·13 보궐선거를 전후로 일찌감치 정계개편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손학규 대표의

진퇴 논란 등으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군불을 때는 '안철수 조기 등판론', 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한 '보수 통합론'이 겹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평화당의 분당으로 민주당의 원내전략 수정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민주당(128석)과 평화당(14석), 정의당(6석)과 일부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3석)까지 합세해 이른바 '과반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일부 평화당 의원들의 탈당에 따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달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 취임과 함께 범여권에서 탈피한 '독자 노선'을 선언한 상황에서 평화당 일부까지 이탈하면서 향후 '표 계산' 셈법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정기라온지

천정배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발의' 예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 지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 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국제법의 기본정선에 위배되는 중대인권침해이자 반인도 범죄임을 규정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편적 권리를 명시한다. 또 일본의 1904년 러일전쟁 개전을 전후로 한 한일 양국 간의 조약 및 협정



이 국제법 위반에 따른 원전 무효라는 점도 밝힌다. 이밖에도 국가가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 규범에 따라 실제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 진실 규명 위원회' 설치 및 운영도 명시했다.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임 야

합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창밖 풍경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